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42回平昌郡議會

開會式

平昌郡議會事務課

1996年 7月 18日(木) 11時30分 開式

第42回平昌郡議會(臨時會)開會式順

- 1. 開 式
- 1. 國旗에對한敬禮
- 1. 愛國歌齊唱
-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 1. 開會辭
- 1. 閉 式

(司會: 議事係長 全完鐸)

(11時30分 開式)

○ 議事係長 全完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낙운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평소 존경하는 김용욱 군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 제41회 임시회에서 평창군의 행정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새롭게 틀을 완비하여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과거 보다는 능동적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으로 중앙집권 일변도의 관행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알뜰한 결실과 획기적인 군정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타도의 시군의회 및 선진지 시찰을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욱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길목에서 일부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사치풍조가 만연하여 이에 따른 과소비가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산업화의 어려운 시절에는 「절약은 미덕」이라는 가치가 강조되면서 국민 모두가 「절약의 생활화」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져와서 오늘과 같은 부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총 외채액은 1,000억달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지난 1년을 뒤돌아 보며 세출예산 측면에서 과소비성인 집행은 없었는지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수혜도를 고려치 않고 전시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게 없는지 금년에 계획한 사업을 다시한번 분석과 점검을 실시하여 생산성이 결여

(11시38분 閉式)

된 소비성적인 행정요인이 있다면 과감히 문제점을 시정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선심성 과시성 있는 행정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결속하여 실감나는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상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군은 전국에서 우뚝 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받돋음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토론 처리하는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事係長 全完鐸 : 이상으로 제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